

리듬체조 손연재 귀국

“리우 올림픽은 완결판 모든 것 쏟아 붓겠다”

체조영재 손연재가 22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에서 귀국하고 있다.

난이도는 지난 시즌과 비슷...장점 살리고 표현력 보강 탱고에 맞춘 새 프로그램 내년 1월 대표 선발전 첫 선

내년 올림픽 시즌에 선보일 프로그램 구성과 배경음악 선정을 마치고 돌아온 손연재(21·연세대)는 “올림픽이 열리는 8월에 최고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연재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러시아에서 1개월 반 정도 머물면서 열

레나 리프도바 코치와 함께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필승 전략’을 짜고 돌아온 손연재는 “올림픽 시즌에 선보일 음악도 정하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 구성도 나와서 이제 연습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매 시즌 발전하고 좋아진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 제가 가진 기술과 제가 지금까지 해온 리듬체조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가진 장점을 모두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세부적인 동작이나 표현은 달라지겠지만, 난도 구성은 비슷할 것 같다. 좀 더 숙련도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난이도는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표현력에서 고득점을 획득해 메달을 노리겠다는 것이 손연재의 전략이다. 그는 “점차 표현력이 강조되는 것 같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에 체점 규정도

표현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수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술점수보다는 예술점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연기를 보여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연재는 “또 표현력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완벽해지지 않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눈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숙련되고, 그 상태에서 작은 포인트를 덧붙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손연재는 새 시즌 리본 프로그램 배경음

악으로 탱고 음악인 ‘리베르탱고(Libertango)’를 선택해 관심을 끌었다. 손연재는 형식이 자유로운 갈라쇼에서 탱고 선율을 맞춰 연기를 펼친 적은 있으나 공식 프로그램에서 탱고를 배경음악으로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탱고가 워낙 빨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훨씬 재미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손연재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친 뒤 트레이너를 교체했다. 시즌 후반만 되면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자 소

속사 측에서 물리치료만 전담했던 트레이너 대신 근력강화운동도 함께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손연재와 동행하도록 했다. 손연재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물리치료도 받고 학사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4일 다시 러시아로 건너간 뒤 16~17일 사이에 돌아와 20일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계획이다. 그는 “런던 올림픽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였다면 내년 리우 올림픽은 지금까지 해온 리듬체조를 모두 보여 드리는 무대가 될 것 같다.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동행 Always KIA TIGERS

KIA 2016 캐치프레이즈

KIA 타이거즈가 ‘동행 Always KIA TIGERS’를 2016시즌 캐치프레이즈로 확정했다. 공모를 통해 확정된 이번 캐치프레이즈에는 ‘KIA타이거즈는 언제나 팬과 함께한다’는 뜻과 함께 ‘늘어지지 않는 하나의 팀워크로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KIA는 지난달 26일부터 16일간 구단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캐치프레이즈를 공모, 총 732건의 작품이 응모됐다. 이 가운데 이상명(서울)씨가 제안한 ‘동행 Always KIA TIGERS’가 2016시즌 캐치프레이즈로 확정됐다. 이씨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권이 대상 상품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

프로야구 단일구 사용키로

내년 시즌부터 프로야구 공식 경기에 단일구가 사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2일 “2016년부터 경기 사용구로 스카이라인 AAK-100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라인스포츠는 지난 8월 열린 단일 경기사용구 입찰에서 평가위원회로부터 응찰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KBO와 경기사용구 제조 및 품질 관리, 납품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을 벌여 최종 공급업체로 결정됐다. 스카이라인이 제공하는 공은 2017년까지 2년간 시범경기와 정규시즌, 올스타전, 포스트시즌까지 KBO 리그 모든 경기에서 사용된다. 또 차점업체로 선정된 아이

엘비(ILB)의 아이엘비 IA-100는 KBO 퓨처스리그 경기 사용구로 결정됐다. 올해까지는 각 구단이 자체적으로 경기구 업체를 선정해 이용했다. KBO는 공의 품질만 검사해 공인해왔다. KBO는 단일구가 도입됨에 따라 야구공 공인규정을 강화하고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KBO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KBO가 공인구를 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각 구단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공인구 업체는 수시검사를 통해 공인규정의 제조기준을 위반하거나 3개월치 재고 확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기준으로 1회 위반 시 제재금 1000만원, 2회 위반 시 제재금 3000만원, 3회 위반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베이스볼 아카데미 전문기록원 양성과정 1월 9일 개강

2016년도 베이스볼 아카데미 전문기록원 양성과정(6기)이 내년 1월9일 서울대학교에서 개강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KBF)가 공동 주관하며 소양교육과 함께 야구기록규칙을 중심으로 기록업무에 필요한 제반 경기규칙 및 야구기록법이 심도있게 다뤄진다. 강의는 KBO 공식기록원과 외부강사진이 맡는다. 1월9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총 8일간(토·일요일) 교육이 진행되며 서류전형 등을 통해 60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대상자에게는 ‘야구 규칙집’, ‘기록 가이드북’, ‘제본 야구기록지’, ‘풀어 쓴 야구기록 규칙’이 교재로 제공되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및 등급 인증서(기존 성적 이상 취득자에 한함)가 발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2월28일부터 2016년 1월3일 오후 6시까지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KBO기록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KBO홈페이지 및 베이스볼 아카데미 홈페이지 상에 공지된다. 문의 02-3460-4663.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승희 빙속 500m 힘찬 출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박승희가 22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42회 스피드스케이팅 스포리트 선수권대회 겸 제70회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스포리트 500m 경기에 출전해 스타트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박승희는 40초24를 기록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연합뉴스

중 항저우 뤼청 흥명보 감독

“항저우 좋은 팀으로 만들어 후배에 길 내는 지도자 될 것”

내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항저우 뤼청의 사령탑을 맡는 흥명보(46)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설렘도 있고, 열정도 있다”고 기대했다.

흥 전 감독은 22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가진 흥명보재단의 자선축구경기 미디어 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프로축구 감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처음이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저우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 당장의 성적을 내기보다 젊은 선수들을 키워서 발전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런 팀의 미래에 대해 처음부터 얘기가 잘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젊은 대표팀에 3~4년 있으면서 젊은 선수를 육성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성장해서 발전하는 것에서 큰 보람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항저우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준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관심을 갖지만 항저우를 미래 좋은 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저우가 지난 시즌 11위를 했는데, 강등권과 승점이 2~3점밖에 나지 않았다”며 “구단으로부터 강등은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한국 선수나 코치진 영입에 대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항저우에도 좋은 코치들이 있어서 기존 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1월 초순에 팀에 합류할 것이고, 1~2월달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변FC 박태하 감독 등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그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중국 내에서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는냐가 중요하다. 다음 세



대의 길을 막아 버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살아보며 외국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며 “중국을 알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것도 항저우 선택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열린 자선축구경기행사의 선수 명단도 발표했다. 이날 경기는 최진철(포항 스틸러스) 감독의 ‘사랑팀’과 전 국가대표팀 안정환이 감독을 맡는 ‘희망팀’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랑팀은 김병지(전남)와 이종호·이근호(이상 전북), 염기훈(수원), 김장수(성남FC) 등으로 구성됐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천수와 정대세(시미즈), 서현숙(이천대교), 송진형(제주), 이상민(현대)도 포함됐고, 박주영(FC서울)도 이름을 올렸다. 희망팀에서는 구자철·지동원·김진수·박주호 등 분데스리가 4인방과 이승우, 장현수(광저우 푸리), 지메시 지소연(첼시)이 포함됐다. 청춘FC의 염호덕과 임근영, 청강장예국가대표 김중훈도 이름을 올렸다. 개그맨 서경석과 지바 롯데 투수 이대은도 활약을 예고했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흥명보 재단의 자선축구경기는 청년실업 해소와 소아암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해 열린다. /연합뉴스